

# 백만송이 튤립 대향연...임자도의 봄에 빠진다

## 11~22일 신안튤립축제

신안군은 '2018년 제11회 신안튤립축제'를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임자도 대광해변 일원에서 개최한다. 축제장에는 1만 8000㎡에 20여종의 튤립 100만 송이가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바다와 모래의 섬 임자도에서 꽃피는 튤립의 대향연'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2km로 동양 최대 규모의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광해변과 백만송이 튤립, 유채꽃밭, 각종 초화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변에서 펼쳐진다.

올 해는 축제장에 축제 마스코트인 '튤리'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장 주변에는 유채 꽃밭을 조성해 리빙스텐데이지와 비올라 등과 함께 아름다운 봄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아름다운 해변서 화사한 봄꽃 감상  
유리온실·사진전 등 볼거리도 다양  
음악회·난타 공연에 승마체험까지  
14일엔 섬 등산대회·사생대회 열려

또 다육식물과 아열대식물 전시관이 있는 유리온실에서는 '새우란'을 전시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행사로는 '전국 섬 등산대회'와 '제4회 튤립학생사생

대회'가 14일 개최된다.

임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임자도의 풍경&옛 사진과 튤립의 만남' 전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시회가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도 경험할 수 있다.

신안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안와 강강술래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 난타, 벨리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유채 꽃밭 승마체험과 재래김 만들기, 슬로시티 체험, 낚시&우드아트 등 체험프로그램도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명을 켜고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어서 야간에도 튤립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행사가 열리는 임자도는 천일염과 대파, 참깨, 새우젓, 김 등이 있으며, 먹거리로는 민 회, 간재미, 봄철 전어, 갑오징어, 송어 등 특산품과 먹거리가 풍부하다.

또 용난굴과 어머니 해변, 전장포항, 새우젓 토굴, 조희룡선생 적거지, 해변승마공원, 태평염전 등을 둘러보는 것은 축제관광의 답이다.

임자도 튤립축제 현장은 지도 점암리 선착장에서 차도선 2적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15분정도 소요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매년 4월이면 임자도 신안튤립축제장에는 20여종의 튤립 100만 송이가 지천으로 피어 관광객을 맞이한다. 지난해 신안튤립축제 현장. (신안군 제공)

## 세일요트 타고 증도·튤립축제 들러 보세요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44인승 38t급 세일요트 '신안 천도천색호'.

## 신안군 여행상품 홈쇼핑 판매

신안군이 5일부터 4일간 생방송 홈쇼핑을 통해 요트 타고 슬로시티 증도와 임자도 튤립 축제까지 둘러보는 특별한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신안군은 임자도에서 11회를 맞는 '신안튤립축제' 기간 동안 세일요트를 타고 슬로시티 증도와 결합된 1박2일 여행상품을 GS홈쇼핑 TV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신안군과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GS홈쇼핑, 롯데관광 특별 기획 상품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세일요트와 다양한 체험, 제철 슬로푸드, 특산품까지 NO쇼핑, NO유선 상품으로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코스는 기관지 천식에 탁월한 소금동굴(염전체험 택1)과 아름다운 서해낙조, 옐도라도 리조트, 갯벌 쟁풍어다리, 럭셔리 요트체험, 대광해변, 백만 송이 튤립축제장에서 따뜻한

봄날 힐링할 수 있다.

또 700년 전 신안해저유물 발굴해역과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며 먹는 제철 자연산 회, 신안의 별미 쟁풍어탕, 낙지초무침 등 먹거리 또한 풍성하게 준비하여 관광객에게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GS MYSHOP' 홈쇼핑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5일 밤 11시53분, 6일 오후 7시9분, 7일 밤 9시11분, 8일 오후 6시29분과 밤 11시53분 등 5차례에 방영 판매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관심 받지 못했던 신안이 지금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관광객 500만 시대 조기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도는 한국 관광 100선,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임자도는 행정자치부 휴가철 가고 싶은 섬 33선에 선정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승마체험하는 어린이

## 튤립축제 때 임자도 신선한 대파도 팔아요

### 임자농협 특산물 알리기 나서

신안 임자농협(조합장 김대현)이 봄날 꽃의 축제 '신안튤립 꽃 축제'가 펼쳐지는 행사장 일원에서 지역 특산물 알리기에 팔고 나섰다.

임자농협은 청정지역의 임자도 현지 옥도에서 생산된 신선한 대파(사진)를 많은 관광

객들이 산지 직거래를 함으로써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소포장 단위로 포장해 한단(1kg) 10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또 대파 포장지에 대파김치와 대파장아찌 담그는 방법과 대파의 효능에 대한 설명도 함께 넣어 국민 식품으로 알리려는 방침이다. 임자도는 이처럼 대파로 농가 소득이 높아

지면서 귀농 희망자들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는 젊은 후계 영농인들이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자농협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특산물인 임자도 대파가 도시의 가정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홍보해 농민들의 소득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3세대 3424명이 살고 있는 임자면은 1500농가가 900ha에서 대파를 생산하고 연간 3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기본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oticon  
PEOPLE FIRST

##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062-364-8800